

보성군 전역 2026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

별교갯벌·득량만·보성강·주암호를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 도시로 도약

보성군(기후환경과)은 ‘별교갯벌’, ‘득량만 해역’, ‘보성강 및 주암호’를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해 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6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가진 지역 중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곳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 3대 자연보전제도 중 하나로, ‘보존’과 ‘발전’, ‘지원’을 조화롭게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 바다와 강, 호수를 하나로… 대한민국 생태축을 잇다

보성군은 군 전역을 ‘별교갯벌’, ‘득량만 해역’, ‘보성강 및 주암호’ 총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핵심구역’은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해양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 법적 보호를 받는 지역으로 지정했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싼 △주암호 수변구역, △친환경 농업 생산 지역(국가중요농업유산인 보성차밭 핵심지역), △내륙부 환경보전해역 등으로 설정해 핵심 생태계를 보호하고, 친환경적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협력구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외의 지역으로 지역 사회와 기업, 주민이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 전국 최고 수준의 체계적인 준비

보성군은 등재를 위해 철저하고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왔다. 2024년 4월,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회의에서 예비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다양한 생태·문화 유산 기반 위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국문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4년 12월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현지 실사 및 보완을 완료했다.

군은 일련의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5년 7월 31일까지 국문 및 영문 최종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 세계 속의 보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

보성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별교갯벌을 보유하고 있으며, 득량만 해역과 보성강, 주암호 등 해양과 내륙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드문 사례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관리되고 있는 차밭과 같은 친환경 농업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태 관광, 지역경제, 문화유산 보호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별교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보성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청정 보성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생태 환경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윤기 기자



진도 바다는 지금 ‘물 반, 꽃게 반’

제철 맞은 진도 봄 꽃게 풍성… 어선당 300kg 잡아 올려

전남 꽃게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진도 해역에서 ‘봄 꽃게잡이’가 한창이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제철을 맞은 봄 꽃게를 잡기 위해 매일 약 20~30척의 꽃게잡이 어선이 출어해 조도면 외병·내병도, 관매도 일원에서 적당 250~300kg의 꽃게를 잡아 올리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서망항에서 진도군수협을 통해 위판된 꽃게는 약 200톤으로 위판액은 약 50억 원이며, 1일 위판량은 8~10톤을 기록하고 있다.

진도군 조도면 해역은 냉수대가 형성돼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하고 모래층이 알맞게 형성되면서 꽃게 서식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됐다.

특히 연중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해역인 진도군은 지난 2004년부터 21년 동안 바다의 모래 채취 금지와 함께 매년 1억 원 이상의 꽃게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왔다.

진도에서는 꽃게를 통발로 잡아 올려 다른 지역 꽃게보다 상품성이 좋아 구매를 위한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진도군수협의 경매

위판 가격은 kg당 3~4만 원이다.

김영서 선장(진도군 통발협회)은 “조도면 등 진도 앞바다는 싱싱하고 알이 꽉 찬 진도산 봄 꽃게 잡이가 한창이다”라고 말했다.

진도군과 진도군수협은 오는 4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진도 서망항 일원에서 제9회 진도 꽃게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꽃게 깜빡 경매, 트로트 가요제, 난타 공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다.

또한 꽃게 낚시 체험, 제기차기·투호 등 전통문화체험, 세대공감 오락실, 풍선 다트 등 부대행사도 많이 있어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청정 해역에서 갓 잡은 싱싱한 꽃게도 드시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에도 참석해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철을 맞아 알이 가득 차올라 미식가들의 식욕을 한껏 자극하는 진도 꽃게는 꽃게찜, 탕, 무침, 간장게장 등으로 활용되며,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아 대형마트, 수산시장 등에 공급되고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장성군 북하면이 산나물 산지로 유명한 지역의 역사성과 개성을 살린 마을축제를 선보인다. 제1회 북쪽하늘아래 산나물축제(이하 산나물축제)가 오는 26~27일 이틀간 장성호관광지와 북하면 단전리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의 주무대는 장성호관광지(북하면 쌍웅리 273)다. 첫날에는 장성국악협회의 풍물놀이와 초대가수 공연, 아코디언·통기타·색소폰 연주, 노래자랑, 건강댄스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1970년대 장성호 조성과 함께 수몰된

주말에는 어디? 장성군 북하면 산나물축제 가자!

26~27일 북쪽하늘아래 산나물축제… 장성호관광지·단전리 일원

북하면 향우들을 위한 ‘제12회 옛 북하면 만남의 날’ 등 뜻깊은 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틀날인 27일에도 초대가수의 무대와 레크리에이션, 각설이 공연, 노래자랑 등 흥겨운 순서들이 이어진다.

점심시간을 앞두고선 북하면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741인분 비빔밥 퍼포먼스’

도 펼쳐진다. ‘741’은 북하면 백암산의 정상인 상왕봉 높이(741m)에서 착안했다.

산나물 체험행사는 26일 하루 동안 북하면 단전리(527번지)에서 열린다. 먼저, 장성호관광지 주무대에서 체험을 신청한 뒤 3000원, 5000원 두 종류로 마련된 봉투를 구입해 체험지로 이동하면 된다. 박충

렬 북하면 축제추진위원장은 “마을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조성한 산나물 재배 장소에서 직접 나물을 채취해 가져가는 행사”라며 “청정 자연을 벗 삼아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역민이 정성을 다해 마련한 산나물축제가 북하면 관광 활성화와 산나물 산지의 명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많은 관심과 방문을 당부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영암군 시종면생활개선회원과 면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3/31일 주된 참여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의 하나로 추진한 태간천 백일홍 꽃길 조성 사전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작업은 태간천 2.7km 구간 백일홍 씨앗 심기, 꽃 이식 포트 5만 구 파종으로 나눠 진행됐다.

꽃길 조성 사전 작업을 지원한 시종면

백일홍 피는 여름 영암 태간천으로 꽃보러 오세요

영암 시종면생활개선회원 등, 천변 백일홍 꽃길 파종 작업 마쳐

은, 다가오는 여름에 백일홍이 만개하면, 태간천변이 꽃길을 따라 걸으며 추억을 쌓는 장소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가까이에 위치한 마한역사공원

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해 영암의 매력을 알리는 장소로도 기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천변 씨앗 심기와 함께 마련된 백일홍 포트는, 꽃

이 필 무렵 시종면 각 마을에 나눠져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에 쓰일 예정이다.

최공수 시종면장은 “시종면민이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고, 마한역사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움 속에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꽃길이 완성될 때까지 주민들과 각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양시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오는 5월 3일 광양읍 서천면 일원에서 ‘2025 광양시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과 광양시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행사장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5월 3일 ‘광양시 어린이날 행사’ 개최… 체험행사 열려

식전행사는 어린이 난타 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서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과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어린이날의 의미를 전한다. 기념식에서는 모범어린이 표창과 내빈 축하 퍼포

먼스가 마련돼 있으며, 식후에는 장구 공연, 풍선아트와 버블쇼, 랜덤 플레이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공연 외에도 행사장 전역에서 ▲에어바

운스 놀이터 ▲실제 장비를 활용한 소방안전체험과 경찰 체험존 ▲아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형 교육 부스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미니게임 ▲서산나래 아이싱 쿠키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재난 상황 대처 방법 등을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안전 체험 프로그램 등 4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무안군,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방류 사업 박차

낙지·감성돔 등 5월 중 추가 방류 예정… 남시꾼 유치 효과도 기대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3일 삼향읍 마동항과 현경면 홀통항에 접붙여 종자 5만 2천 마리를 방류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류는 지난 18일 영산강에 방잡어 종자 6,000여 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무안 연안 해역에도 추가로 시행했다.

무안군은 어업인들의 요청을 반영해 고부가가치 어종인 접붙여를 방류하였으며, 오는 5월에는 지역 대표 수산물인 낙지와 남시꾼들에게 인기 있는 감성돔을

추가 방류해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협력해 바다에는 어린 낙지를, 내수면에는 동자개, 메기, 자라 등 다양한 어종을 방류해 수산자원 회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허동식 해양수산과장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수산종자 방류 사업에 앞장서겠다”며, “어업인들과 소통하며 풍요로운 어장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